

◇ 제5기 전대협 총회 지상보고

구국운동의 구심 전대협

제5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총회를 갖고 의정선출 및 총노선을 확정했다.

전국 각대학 백11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이번총회는 10일 사수대 결의식과 축하만마당을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다.

전대협은 총회 마지막날 김중식(한양대 총학생회장)임시의장을 정족수 1백85표 중 98표가 찬성해 제5기 전대협 의장으로 인준, 선출했다.

또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장은 본교 김중식(신광4)총학생회장이, 전대협 대변인에는 허동준 중앙대 총학생회장이 각각 선출됐다.

김중식의 의정은 선출 소감을 통해 "청년학생 구국투쟁은 마노일당의 장기전이다. 자주·민주·통일의 새국가를 건설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분단고착화음모를 저지하고 민주주의수립의 길로 힘차게邁進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함께 기한 총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규약개정, 투쟁노선노선 확정, 민중연대와 조국통일에 대한 특이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91년 전대협사업의 기초가 될 총노선에 대해 정리한다.

〈전대협 규약〉

제1~1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규약은 올해 '제4조 임시중앙위원회'부분이 신설됐다. 제4조 신설의 이유로 첫째는 이전까지 4대에 걸친 의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구속수감되었기 때문에 그해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의장의 임기가 선출부터 다음 의장선출때까지가 아닌 임시중앙위원회의 임시의장선출 이전까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투쟁노선〉

투쟁노선은 구국운동의 현단계

년의 총괄적 전망에서는 90년도를 92~93년의 체제개편기를 앞둔 준비기로서의 치열한 전초전을 벌인 한해로 평가하고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90년을 민족민주진영의 통일단결의 중요성과 민중의 힘이 중심이 되는 민주연합 구축이 과제로 대두됐던 해로 평가했다. 부분별 운동의 경우 노동운동은 단위사업장별 경제투쟁에 머물렀던 것이 노동악법 개정투쟁으로 전국화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농민운동은 군단위 농민회의 중화부 토대를 강화하고 투쟁속에서 규율성의 강화와 전동의 지도력 고양을 중점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평가했다.

정세 개괄에 대해서는 앞으로



◇ 전대협 총회장에서 의장과 중앙위원의 결의 모습

〈조직노선〉

전대협 조직노선을 보면 전체 구국운동에서 부여받은 전대협의 조직적 과제를 명확히 밝히고 학생회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에 기초해서 자주적 학생회의 현단계를 진단하는 등 제4기 전대협 조직사업 평가와 현재의 조직수준을 정리하여 전국대학 총학생

“반미·통일투쟁 대중적 전개할터” 학생회 강화 통해 ‘전총련’ 건설에 주력

회 연합 건설의 전망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발해자로 나온 안경민 경북대 총학생회장은 90년 자주적 학생회의 현단계는 “학생회의 역사는 어용에서 민주로, 소수에서 다수의 학생회로, 형식적 민주에서 내용이 풍부한 민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학생회의 발전은 학우대중이 학습·투쟁·생활의 자주화과정과 함께 간부 및 조직체계의 변화가 통일되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안건부분〉

특별안건으로는 민중연대부와 조국통일특별위원회를 다뤘다. 민중연대투쟁부에서는 민중연대선언문을 통해 “전대협은 민족

학교 관련단체 탐방(4)··· 밝은사회 국제클럽

선의의 생활(Goodwill), 협동의 생활(Cooperation), 봉사와 기여의 생활(Service).

현대문명의 발달에 따른 인간상상실을 극복하고 인종·지역·계층간의 심화된 불평등과 소외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밝은사회 국제클럽'의 3대정신이다.

본교 조영식(법학박사)총장이 지난 75년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대학총학생회의에서 제안했던 '보스턴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이러한 조총장의 교육적 철학과 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문명사관을 요약한 국내에서 밝은사회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같은해 10월28일 대운동장에서 전교직원과 1만5천여 학생이 참가해 '밝은사회운동 경회합원 결성대회'를 가짐으로써 본교에서부터 정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오던 중 제5차 세계대학총학생회의에서 보스턴선언문에 의한 밝은사회운동을 법제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같은해 본교 조영식총장을 비롯 리만요스키 전 유엔사무총장, 마카파라 전 필리핀 대통령, 허킨스(미국)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각국의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만장일치로 밝은사회운동현장을 채택했다. 이로써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 20여개국에 국가별 본부가 탄생했다.

'보스턴선언문'을 보면 인간이 역사와 문명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인간중심선언',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모든 국가는 동등하다는 민주정신으로 세계평화 구현에 함께 노력한다는 '평화민주주의',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통되어야 한다는 '과학기술의 통어', 인간의 존엄성을 해

선의·협동·봉사의 생활

치는 물질만능의 풍조를 배격한다는 '건설한 인간기풍', 모든 인간은 인류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족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인류가족정신과 새 규범 및 이상사회구현'이 그것이다.

조영식 밝은사회 국제클럽 총

밝은사회 · 인류사회재건운동 전개

반면 밝은사회클럽이 기아, 분쟁, 재해, 빈곤 등 현실문제를 도의적인 채 추상적인 정신문화운동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이는 단회적인 구호차원에 머물렀던 기간의 사업을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위상의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밝은사회클럽 한국본부 이환호 부장은 “밝은사회운동이 '제2의 르네상스운동'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우리사회가 막연한 이상사회(Utopia)가 아닌 당위적인 요청사회(Oughtopia)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신문화개발과 창달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95년까지 기필코 통일을 이룩시다”

제5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의장으로 선출된 김중식(한양대 총학생회장)은 만나 올해 전대협의 투쟁노선과 사업기조에 대해 들어본다.

—전대협 의장으로서의 당선소감은.

△당선소감보다 개인적인 결의를 말씀드립니다. 올해 91년도는 저 개인에게 있어서나 백만학도에 있어서 구국운동에 부족할 수 있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투쟁노선과 실현의 구체적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범민권을 중심으로 재계계층의 통일단결된 투쟁, 한반도의 비핵평화지대와 불가침협정체결, 평화협정체결을 위? 서명운동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95년 분단반세기 기념되지 않는 통일운동의 결정적인 국면을 열고 그러한 토대를 구축하는 해로 삼을 것입니다.

—0년 민중연대투쟁의 평가와 91년의 전망은.

△민중들의 분출하는 정치적, 생존적인 요구들을 끌어 올리지 못하고 한시적으로만 그쳐버린 오류를 극복하고, 청년학생의 지지, 지원자원이 아닌 동지적인 신뢰와 애정으로서 반노·반민중투쟁으로 승화시키는 자주적인 연대를 실현하겠습니다.

김중식 전대협의장

해부터 아홉한 민자당에 맞설 수 있도록 민족민주진영을 단일한 대으로 정비하는 것이 올해 반과쇼투쟁의 중심내용입니다. 92·93년 정치격투기에는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민족자주정권수립이 우선 어렵기 때문에 민주연립정부의 수립과, 연립정부가 얼마만큼 민중에게 기초한 정부가 돼느냐가 관건입니다.



朔風

저는 차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가용으로 널리 쓰이는 승용차입니다.

기개머치인 주제에 왜 사람 노는 마당에 불쑥 끼어들었느냐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영'부'하신 인간님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하소연할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가만 있는데, 아니 좀더 바르게 표현하자면 그 영부하신 인간들이 '시키'는대로 할 뻔인데 세상 돌아가는 꼴이 기개머치인 체 식견으로 보아도 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란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무슨 사고거리는 그렇지도 않은지, 시시비비는 또 어떻구요. 게다가 단속이니 통제이니 하는 말들은 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머리 좋은 인간들이 하는 일인지라 아둔한 제가 그 깊은 경우를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답답한 소리라 생각하시고 몇마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요. 열심히 뛰고 나서 좀 편안히 쉬고 있으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옆구리를 쑥 긁어놓고 갑니다. 제법 날카로운 못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내면 아프지 않은가 보지요. 사람들이 닭장처럼 생긴 데 들어가 사는 곳이 있다면 그중 나는 축에 든다면 희미한 소리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덜 심각한 경우를 말씀드리지요. 가족이나 세상 못 믿고 사는 모습이 갈수록 심해지는 편에 저로 인하여 "단속", "통제"라는 무척 부담스러운

인간세상을 향한 자동차의 항변

키를 대로 하는 심복에게도 피맛을 보여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나마 좀 나은 축에 들니다. 저로 인하여 비롯된—사실은 제 탓이 아니라 영부하신 인간 여러분 탓이지만—시시비비는 정말 저도 참기 힘듭니다. 그 많은 여러 유형 가운데 최근에 비교적 '덜 때문' 곳이라는 캠퍼스에서 교수와 학생간에 심각한 시비가 있었다지요. 허기야 저한테 계수 없게 받쳐서 유명(幽冥)을 달린 분들도 수두룩 하니 이 또한 그중 나는 축에 든다면 희미한 소리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덜 심각한 경우를 말씀드리지요. 가족이나 세상 못 믿고 사는 모습이 갈수록 심해지는 편에 저로 인하여 "단속", "통제"라는 무척 부담스러운

웅진은 우리 문화의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모범생보다 삶의 모험에 나서서 기존의 낡은 율법과 권위에 도전하는 싸움을 서둘러라”

— 고은 에세이 중에서

고려 전작 에세이

얼마나 나는 들에서 들로 헤매었던가

원산을 바라보기에 아주 좋은 자리였다. 나는 시를 썼다. 그러면서 총창을 마셨다. 햇빛이 비친 아주 맑은 흥자의 빛깔. 나는 그 빛깔에 황홀해 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한 모금씩 마셨다. 그런데.....

— 정들지 않는 눈이며 / 중

송연 연작 소설

새악동전

리아가 위의 물건들은 한낱을 출고 있었다. 나는 아슬아슬한 시장통을 휘돌았다. 만병통치약을 팔기 위해 무료히 시간을 죽이고 앉아 있는 무면허의 늙은 약사. "할아버지, 요즘은 만병 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 내어린 숲의 끝 / 중

성장

나만이 울고 있다. 그것은 나의 유년기의 끝을 알리는 눈물, 성장의 고통을 알리는 눈물. 이 세상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내가 최초로 예감하는 눈물이었다.

— 최인식의 그림자 敎官 / 중

최인식

그림없는 그림책

최인식의 최장수 유산작. 전인생의 단상과 유산의 오묘함.

— 최장수의 '죽제의 밤' / 중

김영현

성인서

정만진 김한수 이승우 김향숙

하정일 엮음

웅진문화

영업부 : 522-1671 ~ 3, 522-0442